

불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안에 휩싸인다. 믿음이 없어서 시작된 불안은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없앨 수 없다. 우리에게는 믿음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으로 불안을 없애려는 죄에서 비롯된 습성이 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불안을 없애려 했던 시도였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자손들은 다시 번성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시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시날은 살기 좋은 곳이었다. ‘시날 Shinar’의 뜻은 ‘두 개의 강 사이’로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뜻이다. 터키 동부의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서 발원한 두 개의 강이 나란히 흐르며 비옥한 토지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수메르, 아카드, 고바빌론, 신바빌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의 흥망성쇠가 일어났다. 시날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창세기 11:4**

탑을 쌓은 동기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름을 내는 것’은 단순한 유명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의미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이어졌다. 이런 시도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흩어진 도시마다 거대한 탑이 세워졌고 탑에는 우주 혹은 신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이름들이 붙어졌으며 각 층마다 각기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설치되고 사제가 머물렀다. 도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대한 탑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신전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 남아 있는 지구라트이다.

흩어짐을 면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은 흩어져야 했다.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다스려야 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1:28,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창세기 9:1,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탑 자체에 종교적인 기능을 부여해 하나님을 대체하려 했으며 흩어지지 않고 탑이 보이는 주변에서만 살기를 걱정했다. 불안함 때문이었다. 다시 홍수가 일어나 모두가 죽게 될까 하는 그 불안함 말이다.

사람들은 진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었고 역청을 이용해서 벽돌을 접착했다. 역청은 개발되지 않은 노천유전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방수제로 모세를 담아 나일 강물에 띄운 바구니에도 칠해졌다.

탑의 하층부를 역청으로 칠하면 두 강 중 어느 쪽이 범람하더라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었다. 역청이 칠해진 성과 높은 탑은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 역할을 했다. 이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홍수 심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개의 큰 강 사이에서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물리쳐야 했지만 스스로 역청을 칠한 탑을 쌓고 거기 머물러 살면서 혹시 모를 강의 범람에 대한 불안을 떨치려 했다.

성읍과 탑 건설은 성공적이었다.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흠어시기 전 까지 탑은 거침없이 하늘을 향해 솟았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을 갖게 된다.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탑을 쌓고 스스로 이름을 내야 했다.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언약을 주신 분의 이름을 드러낸다. 그들은 흠어져도 멸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흠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박해를 받아 흠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일어난 복음의 확산을 생각하기 바란다.

*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0 장 뒤에 있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10 장 이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성경에는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된 부분이 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 장의 족보의 맨 마지막 사람이 살던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다.

바벨탑 사건의 전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 것인데 이미 창세기 10 장의 족보에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흠어진 사람들과 그들의 도시가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 장에 기록된 시대 범위 안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

바벨탑 이후에도 사람들은 탑 쌓기를 계속했다. 현재도 존재하는 지구라트(ziggurat)들은 진흙벽돌을 재료로 역청을 발라 건축했다. 보통 7 층에서 8 층으로 지어지는데 가장 높은 층에는 바빌론의 신(주로 말둑)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 어떤 지구라트는 매 층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다.

*

현재까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지구라트는 없다. 성경시대에 지어진 지구라트 중 가장 높은 것은 느부갓네살이 지은 것이다.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2 세(Nebuchadnezzar II)은 고바빌론 왕국이 남긴 에테메난키(Etemenanki)탑 유적을 고쳐 새로운 탑을 쌓았는데 높이가 90 미터가 넘었다(아파트 30 층 높이). 에테메난키의 뜻은 ‘하늘과 땅의 기초’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탑의 기초로 사용한 고바빌론 왕국의 에테메난키 유적을 바벨탑의 흔적으로 여긴다(물론 확인할 수는 없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가장 크고 높은 탑이 에테메난키 일 뿐이다). 에테메난키 외벽 한 변의 길이는 약 400 미터였고 가장 높은 곳에 바빌론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